

지역 소식통

부안군, '노을에 물드는 지질여행' 참가자 모집

부안군은 2026년 지오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이 협력해 '노을에 물드는 지질여행(Sunset Geotourism)'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에는 내빈산 산악 트레킹과 해수욕 체험, 5~6월에는 오디 체험과 채식감 트레킹, 7~8월에는 서해안 갯벌 체험과 적벽강 밤마실, 9~10월에는 변산 마실길 트레킹, 11월에는 고승도치 섬 위도 투어(대월습곡·치유의 숲)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https://res.knps.or.kr)에서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기획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일정에 맞춰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 8만원으로 숙박객실 이용료는 별도이며 문의는 전화(☎ 063-581-7735)로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98개 학교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정읍시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총 72억원을 투입해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원의 혜택은 관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98개 교에 재학 중인 9147명의 학생에게 돌아간다. 시는 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 관내 46개 조리 학교에 정읍산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로 직접 공급하는 지원 사업도 병행 운영한다.

현물 공급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매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을 받은 사과와 배는 물론 각종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 잡곡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식재료가 각 학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서남권 소아 의료 허브 도약

예산 12억8000만원 확보... 정읍아산병원 소아 진료 협력 체계 구축·운영 지원 투입

정읍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2억8,300만원(국비 6억4,150만원, 지방비 6억4,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읍아산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한 서남권 소아 의료 허브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등 소아 진료 협력 체계 구축·운영에 투입되며, 시는 국비 확보를 통해 기존 시비 부담을 덜고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 필수 의료 붕괴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가 지역 의료 자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상한 노력의 결실이다.

시는 단일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인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묶는 전략으로 대도시 의료 풀림 현상을 제한하고 자생적인 소아 진료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정읍아산병원과 협력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정읍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주하며 진료를 제공한다. 진료 종료 이후와 휴일에는 전문의 당직 체계와 응급실 연계 시스템을 가동해 야간 소아 응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이 필요할 경우, 전주나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입원을 떠나야 했던 시민들의 큰 불편을 관내 입원 진료로 말끔히 해소했다. 향후 시는 정읍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보건소, 응급의료체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협력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경증이나 회복기 환자는 지역 동네 의원에서 지속 관리하고, 정밀 검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거점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돌보며 고난도 중증 치료는 삼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를 더욱 탄탄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 본격화... 택지 31필지 공급

단독주택용지 16 · 준주거용지 13 · 주차장용지 2필지... 온비드 통해 26일 6시까지 입찰 신청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고창을 덕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실수요자 대상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지 공급은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창을 도시 확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총 31필지(1만 7796㎡) 규모로 △단독주택용지 16필지 △준주거용지 13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이며, 공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신청은 3월25일 오전 10시부터 3월26일 오후 6시까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개찰은 3월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낙찰 결과는 같은 날 오후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일반 실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고창을 덕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실수요자 대상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요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토지대금을 18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덕산지구는 고창을 생활권과 연결한 지역으로 향후 주거 및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택지 공급을 통해 정주 여

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택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문의는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063-280-7428)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대표 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각계 전문가·주민대표 44명으로 구성... 2년간 축제 발전 견인

부안군은 지난 12일 지역 대표 축제(부안마실축제·부안붉은노을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안군 대표 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읍·면 주민대표,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부안군 대표 축제의 기획과 운영,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제13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보고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방문객 편의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 체제로 전환을 알렸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부안마실축제는 5월 2~5일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서 개최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평생학습관 모두플레이스 본격 운영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조성

고창군이 '배움이 일상이 되는 고창'을 목표로 '고창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평생학습관(고창문화의전당 옆, 옛 군립도서관)'에서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평생학습 수강생과 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시설소개 영상상영, 기념사 및 축사, 색줄 자르기 및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로비, 휴게실, 모두스터디카페, 평생학습사무실과 장학재단 사무실을 오픈라운지

공간으로 조성됐다.

2층은 40여석의 열람실이 있는 집중학습실, 2천여권의 도서와 30여석의 규모의 자율학습실, 동아실과 야외테라스로, 3층은 고창문화관광재단 사무실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건물앞에 수목으로 뒤덮여 있던 정원을 정비해 개방감을 높였다. 고창읍성이 액자처럼 보이는 포인트를 건물 전체에 배치해 고창 최고의 모양성부의 장소적 이점을 활용했다.

건물 1층 로비에서는 평생학습수강생들의 작품이 매일 특별전시된다. 각종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 독서와 휴식, 자격증 취득, 공무원 입시준비 등 다방면에 활용될 예정으로 군민 학습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특구 입주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순항

전북연구개발특구(정읍)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와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입주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구 내 창업보육동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기술 사업화 과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연구개발(R&D) 기반 창업기업

이 성장 단계에서 직면하는 각종 규제 장벽과 고충을 꼼꼼히 청취해 향후 시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에서 수렴된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지원 정책의 개선 기반을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